http://dx.doi.org/10.35704/YJH.61.4

『周易』 益卦의 인문적 해석과 교육적 의미*

임병학**

- 목 차 -

Ⅰ. 서론
Ⅱ. 卦辭·彖辭·大象辭와 교육의 의미
Ⅲ. 六爻 爻辭·小象辭와 교육의 의미
Ⅳ.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주역』 42번째 괘인 益卦의 인문적 해석과 그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먼저 益卦 괘사에 교육은 지식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더해주는 것으로, 하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에 더해주는 교육으로 논할 수 있다. 또 彖辭의 하늘이 베풀고 땅이 생하는 '天施地生'의 이치는 교육에 그대로 적용된다. 스승은 사랑을 베풀고 학생은 자라게 되는 이치이다. 大象辭의 교육적 의미를 보면, 학생들은 각자가 善(良心)을 가지고 있지만, 발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개인이 善性을 발견하여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 이 논문은 2022년도 원광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다음으로 初九爻에서는 乾坤之道에 바탕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乾坤의 진리를 근거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創意的 인재 양성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創意性은 하늘의 뜻을 깨우치는 것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인 『주역』의 말씀을 통해 교육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六二爻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스승이 학생을 대할 때의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주역』에서 사람은 그 근거가 되는 하늘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하늘을 벗어나서 논의될 수는 없는 것이다.

三爻와 四爻에 함의된 교육적 의의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正道를 통해 邪道를 바로 잡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는 正道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九五와 上九爻에서는 은혜의 마음인 惠心과 마음을 세워서 항상 하는 立心有恒을 논할 수 있다. 스승은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은혜의 마음을 세우고 항상 해야 한다.

주제어 : 『주역』, 益卦, 교육, 天施地生, 乾坤, 中道, 惠心.

Ⅰ. 서론

『주역』의 卦는 三爻單卦인 八卦와 六爻重卦인 64괘이고, 64괘의 卦辭와 爻辭는 단편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卦의 상징적 의미와 단편적 문장에 대한 해석은 사람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또 「文言」, 「繫辭

上」, 「繫辭下」 등 十翼은[1] 人文의 세계를 열고 있기 때문에 동양학의 근원적 사상을 담고 있다. 『주역』은 占術書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있지만,[2] 形而上의 철학적 원리인 변화의 道를 통해 인간 삶의 지침이나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는 철학서이자 윤리서이고, 교육서이다.[3]

『주역』에서 교육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觀卦에서는 "성인이 神道를 써서 가르침을 베풀어 세상이 감복하는 것이다."·"지방을 살피고 백성을 관찰하여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4]라고 하고, 坎卦에서는 "떳떳한 덕을 행하며 가르치는 일을 익히는 것이다."[5]라고 하여,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푼 것이 『주역』임을 논하고 있다.

『주역』의 64괘 가운데 특히 4번째 괘인 蒙卦는 교육에 관한 동양적 전통과 인식을 집약하고 있는 괘로 알려져 있다. 몽괘 大象辭에서는 '과감하게 행하여 덕을 길러야 한다(果行育德)'고 하고, '동몽을 계발시킨다(發蒙)'라고 하였다. 몽괘는 어린 아이가 인생을 배우면서 생장하는 내용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의 실천방법을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계사하」 제2장에서는 성인의 일을 밝히면서, 그 근거를 64卦에 두고 있다. 제2장에서는 "복희씨가 돌아가시거늘 신농씨가 일어나서 나무를 깎아서 보습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서 쟁기를 만들어, 쟁기와 호미의 이로움

---

1) 十翼은 『주역』의 64괘 卦辭와 384爻 爻辭를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10가지 날개이다. 孔穎達이 『周易正義』에서 「彖上」, 「彖下」, 「象上」, 「象下」, 「文言」, 「繫辭上」, 「繫辭下」, 「說卦」, 「序卦」, 「雜卦」으로 정리하였다.

2) 『주역』이 占術書라는 것도 占과 術(꾀, 術數)을 구분해서 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占에 대해 「계사상」 제5장에서는 '數를 지극히 해서 來를 아는 것이라(極數知來之謂, 占.)'하였고, 제10장에서는 '占은 聖人之道의 하나로(易有聖人之道, 四焉, …... 以卜筮者, 尙其占)' 밝히고 있다. 또 占은 卜(天, 빛) + 口(地, 확장) + 口(人, 말씀)로, 하늘의 뜻을 말씀으로 땅에 전해준다는 의미이다. 즉, 占書는 바로 '하늘의 뜻을 세상에 말해 준다'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임병학, 『周易』의 河圖洛書論에 근거한 卜筮와 往來·順逆의 의미 고찰」, 『인문학연구』 제116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270쪽.).

3) 장재천, 「몽괘의 해석과 교육적 의미」, 『주역철학과 문화』 제3집, 한국역경문화학회, 2008, 84쪽.

4) 『주역』, 「風地觀」, 彖辭, "聖人, 以神道設教而天下, 服矣.", 大象辭, "省方觀民, 設教."

5) 『주역』, 「重水坎」, 大象辭, "常德行, 習教事."

으로 세상을 가르치니 대개 益卦에서 취하고"[6]라고 하여, 神農氏가 『주역』의 42번째 괘인 익괘에서 뜻을 취하여 세상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신농씨는 인류의 정착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농업을 가르쳐 주고 사람들을 교화한 성인으로,[7] 마지막 구절인 '以敎天下'의 '가르칠 敎'에서 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益卦의 교육론은 신농씨가 교육을 통해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명실상부한 문화인으로 교화시킨' 것으로 보아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물론 益卦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하다.[8] 논자는 익괘의 卦辭, 彖辭, 爻辭, 象辭의 상징적 내지 철학적 해석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주역』의 形而上學을 통한 교육의 철학적 접근은 한국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創意的 인재 육성[9]과 일부 교사들의 편향된 이념 교육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역』의 교육에 대한 논문을 검색해 보면, 위에서 인용한 장재천의 「몽괘의 해석과 교육적 의미」가 있고, 또 이정래의 「「서괘전」에 함의된 공부의 관점-태괘에서 이괘까지를 중심으로」(『한국철학논집』 제59집, 2018.)과 박균

---

6) 『주역』, 「繫辭下」, 제2장,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敎天下, 蓋取諸益."

7) 「계사하」 제2장에 의하면, 神農氏는 「風雷益」의 원리에서 취하여 인류에게 농경문화를 가르쳐 주고, 「火雷噬嗑」의 원리를 취하여 시장경계를 열어준 성인으로 밝히고 있다.
또 『위키백과』에 의하면, "신농(神農)은 중국 고대 삼황(三皇)중의 한분으로 흔히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라고 불린다. 신농씨는 염제신농국을 세웠고 나라는 그의 자손들로 이어져 8대 520년간 중국을 통치하였다. 신농씨는 황제헌원 이전에 한족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백초의 풀을 직접 맛보아 해독을 하였으며, 오늘날 한의학의 창시자로 불린다. 한의학의 최초의 저서로 유명한 '신농본초경'을 저술하였다."라고 하였다.

8) 김충렬은 '익괘의 彖辭는 특히 윤리도덕적인 면을 강조하고, 이는 도덕적 敎化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익괘의 의미를 논하고 있다.(김충렬, 「損·益卦의 논리와 교훈」, 『周易硏究』 제2집, 한국주역학회, 1997, 30쪽.)

9) 創意的 인재의 핵심은 '創意'에 있다. 창의는 '創造의 뜻'으로, 하늘이 만물과 사람을 짓은 뜻을 아는 것이다. 즉, 사람의 創意性은 하늘의 뜻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것에서 얻어지게 된다. 『주역』은 성인이 밝힌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64괘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통해 創意的 사유를 하게 될 것이다. (임병학,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8, 135쪽)

섭의 「조선시대 『주역』의 이해와 교육에 관한 시론적 고찰」(『한국교육사학』 제30권 제1호, 2008.) 등[10] 『주역』을 교육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논문들이 있고, 김충렬의 「損·益卦의 논리와 교훈」(『주역연구』 제2집, 1997)에서 익괘의 의미를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에 익괘의 괘사, 단사, 효사, 상사의 인문학적 내지 철학적 해석과 그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11] 먼저 제2장에서는 괘사·단사·대상사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논하고, 제3장에서는 六爻와 교육의 의미로 六爻를 天·地·人으로 나누어, 初九와 六二, 六三과 六四, 九五와 上九에 나타난 교육의 의미를 각각 논하고자 한다.

Ⅱ. 卦辭·彖辭·大象辭와 교육의 의미

1. 卦辭 : 큰 내를 건너다.

益卦의 괘사는 다음과 같다.

> "益은 갈 바가 있음이 이로우며, 큰 내를 건넘이 이로운 것이다."[12]

---

10) 또 석사논문으로 이영옥의 「『주역』 몽괘의 교학론 연구」(울산대 교육대학원, 2008.)가 있다. 특히 박균섭은 위 논문에서 "『주역』은 삶과 교육에 관한 유기적 연관과 철학적 구도를 보여주는 교육 고전으로서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교육적 해석과 논의가 있는 괘로 乾卦, 坤卦, 蒙卦, 謙卦, 復卦, 大畜卦 등을 논하고 있다.

11) 『주역』 64괘의 순서인 괘사, 단사, 효사, 상사의 순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주역』의 기본적인 순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뜻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64괘의 말씀을 차례로 해석할 때 그 뜻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주제에 따라 익괘의 교육론을 구성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2) 『주역』, 「風雷益」, 卦辭, "益, 利有攸往, 利涉大川也."

益卦의 괘사는 '益'과 '利有攸往' 그리고 '利涉大川'의 세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괘 이름인 더할 益은 물 水(氺)와 그릇 皿으로, 그릇에 물이 넘치는 것이다. 내 마음의 그릇에 하늘의 은택인 물이 더해져서 넘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 益은 넉넉하다, 풍부해진다, 유익하다(돕다), 향상되다 등의 뜻이 있다. 『易傳』에서는 "益은 천하의 도에 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갈 바가 있어서 이로운 것이고, 익괘의 道는 험난을 건너게 하기에 큰 내를 건넘이 이로운 것이다."[13]라고 하여, 益의 의미를 통해 利有攸往와 利涉大川을 논하고 있다.

「風雷益」의 괘 그림과 그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風雷益			上·下卦	八卦 상징[14]
上九	⚊	天	☴ 巽上	바람, 入, 長女
九五	⚊			
六四	⚋	人		
六三	⚋		☳ 震下	우레, 動, 長男
六二	⚋	地		
初九	⚊			

益卦는 巽上에서 바람이 불어 天道가 흩어지면, 震下에서는 우레가 움직여서 만물을 가득 차게 하는 卦이다. 괘상에서 바람과 우레는 서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람이 매서우면 우레가 빠르고, 우레가 격동하면 바람이 노하여,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다.[15]

「계사하」 제7장에서는 "益은 덕의 넉넉함이고, 익은 길게 넉넉하지만 베풀지 않고, 익은 이로움을 흥작하고"[16]라고 하여, 益卦는 하늘의 은택이

13) 程頤, 『易傳』, 「風雷益」, 卦辭注 "益者, 益於天下之道也, 故, 利有攸往, 益之道, 可以濟險難, 利涉大川也."

14) 『주역』, 「說卦」, 제6장, "震 動也, 巽 入也." ; 제10장, "震, 一索而得男, 故, 謂之長男, 巽, 一索而得女, 故, 謂之長女." ; 제11장, "震 爲雷, … 巽 爲木爲風."

15) 程頤, 『易傳』, 「風雷益」, 卦辭注 "巽上震下, 雷風二物, 相益者也. 風烈則雷迅, 雷激則風怒, 兩相助益, 所以爲益, 此以象言也."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본성인 덕의 넉넉함을 의미하고, 세상에는 이로움을 일으키는 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역』에서 益을 찾아보면, 15번째 괘인 謙卦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단사에서는 益을 天道의 작용과 관련하여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은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한 마음에는 하늘이 더해주는 것이라[17] 하고, 大象辭에서는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것에 더해주어 만물을 저울질하여 고르게 베푸는 것이다."[18]라고 하여, 많은 것을 덜어내고 적은 것에 더해주는 것은 만물의 의미에 맞게 고르게 베푸는 것이라 하였다. 즉, 겸괘에서 益은 하늘의 작용이 드러나는 것이자, 만물의 존재 의미에 맞게 덜고 더해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利有攸往을 고찰해보면, 『주역』의 여러 괘에서 직접 '갈 바가 있음이 이롭다'고 하였다. 復卦에서는 그 도를 반복하여 7일에 돌아오니 갈 바가 있어서 이롭다고 하고, 大畜卦에서는 갈 바가 있음이 이로운 것은 위가 뜻을 합하기 때문이라 하였고, 恒卦에서는 마친 즉 시작이 있는 終始원리로 논하고, 萃卦에서는 천명에 따르는 것이라[19] 하였다. 따라서 갈 바가 있음이 이로운 것은 七日來復과 終則有始, 順天命 등 하늘의 작용에 따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益은 하늘의 은택이 내 마음에 더해져 갈 바가 있음이 이로운 것이다.

세 번째로 利涉大川을 고찰해보면, 需卦에서는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는 것은 실천하면 공덕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蠱卦에서는 실천하면 일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고, 大畜卦에서는 '하늘에 응하는 것이다'라 하였다.[20]

---

16) 『주역』, 「繫辭下」, 제7장, "益 德之裕也, …… 益 長裕而不設, …… 益以興利."
17) 『주역』, 「地山謙」, 彖辭, "彖曰謙亨, 天道, 下濟而光明, 地道, 卑而上行, 天道, 虧盈而益謙."
18) 『주역』, 「地山謙」, 大象辭, "裒多益寡, 稱物平施."
19) 『주역』, 「地雷復」, 彖辭, "反復其道, 七日來復, 利有攸往", 「山天大畜」, 九三爻 小象辭, "象曰利有攸往, 上合志也.", 「雷風恒」, 彖辭, "利有攸往, 終則有始也.", 「澤地萃」, 彖辭, "利有攸往, 順天命也."
20) 『주역』, 「水天需」, 彖辭, "利涉大川, 往有功也.", 「山風蠱」, 彖辭, "利涉大川, 往有事也.", 「山川大畜」,

큰 내를 건넘이 이롭다는 것은 하늘에 응하여 실천을 하기 때문으로 이후에 공덕이 있고,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대천을 건넘은 삶의 차원 전환이나 자기 혁신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또 無智에서 智慧로 건너게 한다는 교육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大川은 인생의 강으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야 한다. 그 배는 나무로 만들고 나무는 『주역』에서 巽卦의 神道를 상징하고 있다. 대천을 건너는 의미를 渙卦에서는 '나무를 타고 공적이 있기 때문이고', 中孚卦에서는 '나무를 타고 빈 배라'[21]고 하였다. 따라서 큰 내를 건너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神道를 깨우쳐야하는 험난한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익괘 괘사에서 '益은 갈 바가 있어서 이롭고, 큰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고 한 것은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하늘의 작용에 따라서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교육은 지식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더해주는 것으로, 하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에 더해주는 교육,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육, 사람의 마음을 이롭게 하는 교육, 어려움을 건너게 하는 교육,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으로 논할 수 있다.

2. 彖辭 : 하늘은 베풀고 땅은 기른다.

益卦 괘사의 뜻을 결단하여 풀이한 彖辭는 다음과 같다.

> "단에서 말하기를 益은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하니, 백성의 기쁨이 한계가 없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니 그 도가 크게 빛나는 것이다. 갈 바가

彖辭, "利涉大川, 應乎天也."

21) 『주역』, 「風水渙」, 彖辭, "利涉大川, 乘木 有功也." 「風澤中孚」, 彖辭, "利涉大川, 乘木 舟虛也."

있어서 이로운 것은 중정하여 경사가 있음이고,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는 것은 木道(손괘)가 이에 행하기 때문인 것이다. 益은 움직이고 들어감이니 날로 나아가서 한계가 없으며, 하늘은 베풀고 땅은 기르니 그 더함이 방소가 없다. 무릇 益의 道는 天時와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이다."[22]

益卦의 彖辭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益은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하니, 백성의 기쁨이 한계가 없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니 그 도가 크게 빛나는 것이다'로, 益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더해주는 것은 하늘의 사랑을 덜어서 아래에 더해주는 것이고, 하늘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한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갈 바가 있어서 이로운 것은 중정하여 경사가 있음이고, 대천을 건넘이 이롭다는 것은 木道(손괘)가 이에 행하기 때문인 것이다'로, 卦象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中正의 경사는 陰의 자리인 二爻에 陰爻가 오고, 陽의 자리인 五爻에 陽爻가 온 '六二'와 '九五'의 의미를 말한 것이다. 上卦(外卦)가 巽卦이기 때문에 대천을 건너는 것은 木道를 타고 건너는 것이다. 즉, 위에서 巽卦의 風敎를 열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아래 백성들은 마치 풀 위에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에 따라서 교화가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단락은 '益은 움직이고 들어감이니 날로 나아가서 한계가 없으며, 하늘은 베풀고 땅은 기르니, 그 더함이 방소가 없다'로, 움직임(震)과 들어감(巽)의 卦象을 논하고, 天施地生의 이치를 밝히고 있다. 施에 대하여, "구름이 행하고 비가 베풀어져서 품물이 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위

22) 『주역』, 「風雷益」, 彖辭, "彖曰益, 損上益下, 民說无疆, 自上下下, 其道大光. 利有攸往, 中正, 有慶, 利涉大川, 木道乃行. 益 動而巽, 日進无疆, 天施地生, 其益, 无方, 凡益之道, 與時偕行."

의 베풂이 빛나는 것이다.”·“천명을 베풀어 사방에 알리는 것이다.”[23]라고 하여, 하늘의 작용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라 하였다.

즉, 天施地生은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존재의 개시 정황으로, 施는 그대로 하늘의 뜻이 베풀어지는 것이며, 生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땅에서 구체적인 만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역』에서 다양하게 밝히고 있는 존재 개시의 말씀과 존재 구조에 대한 표현은 모두 天施地生으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만물이 탄생하는 陰陽合德(天地交合)의 이치를 곡진하게 표명한 것이다.[24]

巽上과 震下의 卦로 天施地生을 이해하면, 上卦에서 바람이 불면, 下卦에서는 우레가 움직여 만물에 낳는 것이다. 또 하늘이 땅에 기운을 베풀고, 땅은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생육하는 것이다. 이것은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하는 損上益下와 같은 의미이다.[25] 또 하늘과 땅의 공덕으로 益卦의 위대함을 말한 것이고, 성인이 이것을 체득하여 세상에 더해주는 것이다.[26] 하늘은 바탕을 시작하고 땅은 만물을 생육하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가 없이 무한한 것이다.

마지막 단락은 ‘무릇 益의 道는 천시와 더불어 함께 행하는 것이다’로, 마음에 은택을 더하기 위해서는 天時와 더불어 행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彖辭의 네 단락을 교육적 입장에서 논하면, 먼저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하는 것은 스승이 자신의 지혜와 사랑을 덜어서 아래의 학생에게 더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로 고찰한, 하늘이 베풀고 땅이 기르는 天施地生은 교육에

23) 『주역』, 「重天乾」, 彖辭, “雲行雨施, 品物流形.”, 「山雷頤」, 象辭, “上施 光也.”, 「天風姤」, 大象辭, “施命誥四方”.
24) 송재국, 「『주역』 풍뢰익괘 ‘天施地生’의 順逆的 이해」, 『동서철학연구』 제60집, 한국동서철학회, 2011, 60쪽.
25) 孔穎達, 『周易正義』, 「風雷益」, 彖辭, “天施氣於地, 地受氣而化生, 亦是損上益下之義也.”
26) 程頤, 『易傳』, 「風雷益」, 彖辭, “以天地之功, 言益道之大, 聖人體之, 以益天下也.”

그대로 적용된다. 天施地生에서 天은 모든 자연적인 무형의 시혜를 베푸는 존재이고, 地는 그것을 통해 물질적인 생산물을 산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 한 바와 같이 天地를 음양의 관계로 본다면, 사람의 세계에서 스승과 제자를 음양의 관계로 이해된다.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 지식이나 기술로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한다면, 天-地를 師-弟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스승은 사랑을 베풀고 학생은 자라게 되는 이치이다.

스승이 君師父一體[27]로 하늘의 의미라면,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이 되는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은 장소에 상관없이 더해지는 것이다.

3. 大象辭 : 善을 보면 옮긴다.

益卦의 大象辭는 다음과 같다.

> "바람과 우레가 익이니, 군자가 이로써 善을 보면 옮기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다."[28]

益卦의 원리를 아는 군자는 그것을 통해 善을 보면 옮겨서 실천하고,

---

27) 『논어』에서는 "자하가 말하기를 어진 이를 어질게 대하되 얼굴을 바꾸고, 부모를 섬기되 능히 그 힘을 다하고, 임금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子夏ㅣ 曰賢賢호대 易色하며 事父母호대 能竭其力하며 事君호대 能致其身하며, 「學而」)"라고 하여, 賢人인 스승과 부모, 임금을 함께 논하고 있다. '君師父一體'는 단순히 봉건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고, 스승은 내가 어떤 존재이지·사람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임금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일자리를 주신 분이다. 따라서 부모와 스승 그리고 임금은 나를 사랑으로 낳고, 사랑(진리)을 가르쳐주고, 사랑(사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신 본질적 이치를 담고 있다.

28) 『주역』, 「風雷益」, 大象辭, "象曰風雷, 益, 君子以, 見善則遷, 有過則改."

허물이 있으면 고치게 되는 것이다. 선을 보고 능히 실천하면 세상의 선을 다 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음에 능히 고치면 허물이 없어질 것이다. 사람에게 더해주는 것이 이것보다 큰 것이 없는 것이다.[29] 여기서 善을 '착함'이나 '잘함'의 의미와 함께, 至善의 근원적인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사상」 제5장에서는 "한번 음으로 작용하고 한번 양으로 작용하는 것을 道라고 하고, 이것을 계승하는 것을 善이고, 이것을 이룬 것을 性이라고 한다."[30]라고 하여, 음양으로 작용하는 天道를 계승한 것이 인간 본성인 '善性'임을 밝히고 있다. 또 제6장에서는 "이간의 선은 지극한 덕과 짝하고"[31]라고 하여, 乾坤之道의 작용인 善은 德과 짝하는 것이라 하였고, 乾卦 「文言」에서는 "元은 善의 으뜸이고"[32]라고 하여, 善은 하늘의 德性이자,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선을 본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의미를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하늘의 덕(天德)을 따르는 것이자, 자기의 本性을 깨우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허물은 고치고 선은 옮긴다는 '改過遷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益卦 대상사와 순서가 다르다. 자기의 善性을 먼저 알고 허물을 고치는 것과 허물을 고치고 선을 실천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善은 天道를 계승한 인간 본성으로 이해한다면, 허물을 고치고 다음에 善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알아서 실천하고 다음에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장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이 惡하다고 하면 改過遷善이고, 본성이 善하다고 하면 遷善改過가 되는 것이다.

한 궁인 損卦 대상사에서는 "산 아래에 연못이 있음이 손괘이니, 군자

29) 程頤, 『易傳』, 「風雷益」, 大象辭, "見善能遷則可以盡天下之善, 有過能改則无過矣, 益於人者, 无大於是"
30) 『주역』, 「繫辭上」, 제5장, "一陰一陽之謂, 道, 繼之者, 善也, 成之者, 性也."
31) 『주역』, 「繫辭上」, 제6장, "易簡之善, 配至德."
32) 『주역』, 「重天乾」, 文言, "元者, 善之長也."

가 이로서 성냄을 징계하고 욕심을 막는 것이다."[33]라고 하여, 忿心을 응징하고 欲心을 막는 경계를 밝히고 있다. 즉, 損卦는 자기의 욕심을 덜어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忿心과 欲心을 이야기하고, 益卦는 하늘의 은택이 더해지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인 善을 보고 옮기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다.

大象辭를 통해 교육의 의미를 논하면, 학생들은 각자가 善(良心)을 가지고 있지만, 발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개인이 善性을 발견하여 실천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즉, 허물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양심을 알아서 실천한 다음의 일인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속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遯卦 대상사에서는 "소인은 멀리하되 미워하지 말고 엄하게 한다."[34]라고 하여, 사람의 小人的인 마음은 멀리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잘못된 것을 엄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慾心에 끌리게 되면 잘못을 하게 된다. 그 잘못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허물을 고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Ⅲ. 六爻 爻辭·小象辭와 교육의 의미

「說卦」 제2장에서는 "三才가 모두 둘로 작용하는 까닭으로 『주역』은 여섯 획으로 괘가 완성되며, 음과 양으로 나누어지고 유와 강이 번갈아 작용하는 까닭으로 『주역』은 여섯 位로 문장이 완성된다."[35]라고 하여, 六爻

33) 『주역』, 「山澤損」, 大象辭, "象曰山下有澤 損, 君子以, 懲忿窒欲."
34) 『주역』, 「天山遯」, 大象辭, "遠小人 不惡而嚴."
35) 『주역』, 「說卦」, 제2장, "兼三才而兩之, 故易六畫而成卦, 分陰分陽, 迭用柔剛, 故易六位而成章."

로 구성된 64괘는 天·人·地 三才之道가 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익괘의 여섯 효를 天·人·地로 나누어, 初爻와 二爻는 地, 三爻와 四爻는 人, 五爻와 上爻는 天에 배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初九·六二 : 乾坤(진리)에 바탕을 두다.

본 절에서는 地에 해당되는 初九와 六二의 爻辭와 小象辭를 해석하고, 그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益卦의 初九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초구는 크게 지음을 하여 씀이 이로우니, 근원적으로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서 말씀하시기를 근원적으로 길하고 허물이 없음은 아래가 일을 두텁게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36]

初九爻가 근원적으로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은 '大作'을 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益卦의 첫 효는 震卦의 움직임이 시작하는 것으로 일의 실마리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두텁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일의 실마리에 大作을 쓰기 때문에 이롭고 근원적으로 길하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大作은 단순히 '크게 짓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初九는 처음이기 때문에 크게 짓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大作은 大와 作으로 구분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乾卦에서는 '크도다 乾元이여!'[37]라 하고, 「계사상」 제6장에서는 '乾道는 大를 낳고, 坤道는 廣을 낳는다'[38]고 하여, 大는 乾道의 작용으로 논하고 있다. 특히 「계

36) 『주역』, 「風雷益」, 初九, "初九, 利用爲大作, 元吉, 无咎. 象曰元吉无咎, 下不厚事也."
37) 『주역』, 「重天乾」, 彖辭, "彖曰大哉, 乾元."

사상」 제1장에서는 "乾道가 大始를 주재하고, 坤道는 만물의 완성을 作한다."[39]고 하여, 大와 作은 乾坤의 작용임을 알 수 있다.

乾坤에 대해 「계사상·하」에서는 "건곤은 역도가 온축된 것이구나! 건곤이 열을 이루면 역도가 그 가운데 서고, 건곤이 훼손되면 역도를 볼 수 없고, 역도를 볼 수 없으면 건곤이 혹 거의거의 사라질 것이다."[40]·"건곤은 역도의 문이구나! 건은 양물이고 곤은 음물이니"[41]라고 하여, 『주역』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初九爻에 함의된 교육론은 乾坤之道에 바탕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乾坤之道는 바로 하늘의 뜻, 즉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주역』에서 밝히는 교육론의 특징이라 하겠다. 동양학은 성인의 가르침과 그 성인이 말씀을 기록한 經典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42]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 내지 윤리·도덕적인 원리는 하늘의 뜻인 乾坤之道로 표상되기 때문에 진리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乾坤之道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교육철학은 실증주의·경험주의·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서양철학의 영향으로, 형이상의 진리에 대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 특히 진리를 담고 있는 經典의 위대함이나 성인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하고, 개인의 인식이나 감정을 중시하는 사상적 경향인 포스터 모더니즘의 타락

38) 『주역』, 「繫辭上」, 제6장, "夫乾, 其靜也 專, 其動也 直, 是以大 生焉. 夫坤, 其靜也 翕, 其動也 闢, 是以廣 生焉.
39) 『주역』, 「繫辭上」, 제1장, "乾知大始, 坤作成物.
40) 『주역』, 「繫辭上」, 제12장, "乾坤, 其易之緼耶. 乾坤, 成列而易, 立乎其中矣. 乾坤, 毁則无以見易, 易, 不可見則乾坤, 或幾乎息矣."
41) 『주역』, 「繫辭下」, 제6장, "子曰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42) 『주역』에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성인은 진리를 깨우쳐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다.

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익괘의 六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육이는 혹이 더하는 것은 십이 벗하는 것이다. 거북도 능히 어기지 않으니 길게 곧으면 길하니, 왕이 상제에게 향례를 쓰더라도 길한 것이다. 상에서 말씀하시기를 혹이 더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이다."[43]

六二爻에서 밝힌 '或', '龜', '朋', '帝' 등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六二爻는 앞의 괘인 損卦 六五爻의 "六五는 혹이 더하는 것은 십이 벗하는 것이라. 거북도 능히 어기지 않으니 근원적으로 길한 것이다. 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오가 근원적으로 길하다는 것은 위로부터 돕기 때문인 것이다."[44]와 서로 대응되고 있다. 損卦에서는 '근원적으로 길함'과 '위로부터 돕기 때문임'을 논하고, 益卦에서는 '길게 곧음이 길함'과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임'을 논하고 있다. 밖으로부터 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

『주역』에서 十은 하늘을 상징하는 數理이고, 帝는 上帝로 인격적 하늘을 의미하고, 혹하는 존재도 하늘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거북은 洛書를 상징하는 것으로[45] 하늘의 작용으로 해석되며[46], '어길 違'는 乾卦의 '하늘

---

43) 『주역』, 「風雷益」, 六二, "六二, 或益之, 十朋之, 龜弗克違, 永貞, 吉, 王用享于帝, 吉. 象曰或益之, 自外來也."

44) 『주역』, 「山澤損」, 六五, "六五, 或益之, 十朋之, 龜弗克違, 元吉. 象曰六五元吉, 自上祐也."

45) 「風雷益」 六二爻辭의 十과 朋 그리고 龜에 대한 해석은 『正易』의 학문적 체계를 통해 『주역』을 해석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역』에서는 '십을 무극(无極, 十)'이라 하고, '洛書를 龜書(龜書, 旣濟之數)'라 하고 있다.(류남상·임병학, 『一夫傳記와 正易哲學』, 도서출판 연경원, 2013.)

46) 河圖는 陰과 陽의 數가 五를 근거로 合德되어 있다면, 洛書는 十을 근거로 陰陽이 분리되어 陽數는 陽數·陰數는 陰數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河圖가 현상 세계에 전개되는 변화원리를 담고 있다면, 洛書는 드러나지 않는 天道의 四象작용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임병학, 「『주역』의 하도·낙서와 「계사상」 제9장의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83호, 한국동서철학회, 2017, 132쪽.)

이 어기지 않는다'[47]와 짝하여, 龜가 天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48]

또 九二爻에서 왕이 上帝에게 享禮를 올리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늘에 제사 올리는 행위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따르고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사[49]에 대해 豫卦에서는 "우레가 땅에서 일어남이 예괘이니, 선왕이 이로써 음악을 짓고 덕을 숭상하여 상제에 그윽이 올려서 돌아간 조상과 짝을 하는 것이다."[50]라 하여, 하늘의 뜻에 감응하기 위해 자신을 경건히 하는 것을 논하고, 困卦에서는 "제사를 씀이 이로운 것을 복을 받기 때문이다."[51]라고 하여, 제사의 이로움은 복을 받는 것이라 하였다. 제사와 복에 대해, 『예기』에서는 "복이라는 것은 갖추는 것이다. …… 갖춘다는 것은 안으로 자신의 성의를 다하고, 밖으로 도리에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52]라고 하여, 제사는 자신의 내면적 성의를 다함으로써 밖으로 만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모든 일이 순조롭게 기원하는 마음에서 진실(誠)·믿음(信)·충성(忠)·공경(敬)을 다하는 것이다.

鼎卦에서는 "鼎卦는 상이니 나무로써 불을 일으켜 음식을 삶는 것이니, 성인이 (음식을) 삶아서 상제에게 올리고 크게 삶아서 聖賢을 양육하는 것

47) 『주역』, 「重天乾」, 文言, 六五, "天弗違."

48) 거북(龜)은 卜의 방법에 이용된 동물이기에 卜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주희는 『역학계몽』에서 공안국의 말을 인용하여 "洛書는 禹가 治水할 때, 신명스런 거북이가 등에 나열하여 文彩를 지고 나왔는데, 그 數가 아홉에 이르므로, 禹가 이를 따라 순서를 정하여, 아홉 개의 무리로 이룬 것이다.(朱子, 『易學啓蒙』, 本圖書第一, "孔安國云 …… 洛書者 禹治水時, 神龜負文而列於背, 有數至九, 禹遂因而第之, 以成九類.")"라고 하여, '龜'는 洛書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다.

49) 제사는 養生과는 다른 사람만의 일로 자신의 근원자리인 부모·조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첫째, 내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부모님을 나타내어 효를 다하는 것이다. 둘째, 조상님(부모님)이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追慕하는 것이다. 셋째, 제사를 경건히 함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인격 수양의 場이다.(임병학, 『중용, 주역으로 풀다』, 동남풍, 2018, 119쪽.)

50) 『주역』, 「雷地豫」, 大象辭, "雷出地奮, 豫 先王, 以 作樂崇德, 殷薦之上帝, 以配祖考."

51) 『주역』, 「澤水困」, 九五 小象辭, "利用祭祀, 受福也."

52) 『예기』, 「祭統」, "福者 備也, …… 備者, 言內盡於己而外順於道也."

이다."[53]라고 하여, 음식을 준비해서 상제에게 올리는 행위와 성현을 기르는 교육은 한 마음임을 밝히고 있다. 하늘에 올리는 제사와 학생을 기르는 교육은 같은 마음을 가져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六二爻의 교육적 함의는 상제에게 향례를 올려 하늘의 뜻에 감응하는 것과 하늘의 뜻을 펼치는 것이 교육임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교육에서 하늘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할 수 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둘이 아니기[54] 때문에 자신을 경건히 하여 하늘을 따르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행위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스승이 학생을 대할 때의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주역』에서 사람은 그 근거가 되는 하늘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하늘을 벗어나서 논의될 수는 없는 것이다.

2. 六三·六四 : 中道를 실천하다

본 절에서는 人에 해당되는 六三과 六四의 爻辭와 小象辭를 해석하고, 그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益卦 六三爻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六三은 益을 흉한 일에 씀은 허물이 없거니와 중도를 행하는데 믿음이 있어야 공에게 알리고 홀을 쓸 것이다. 상에서 말하기를 益을 흉한 일에 씀은 굳게 있기 때문이다."[55]

---

53) 『주역』, 「火風鼎」, 彖辭, "彖曰鼎, 象也, 以木巽火, 亨飪也, 聖人, 亨 以享上帝, 以大亨, 以養聖賢."
54) 『서경』, 「說命下」, "惟敎學半, 念終始典于學."(오직 가르침은 배움의 절반이니, 終始를 배움에 법으로 생각해야 한다.)
55) 『주역』, 「風雷益」, 六三, "六三, 益之用凶事, 无咎, 有孚中行, 告公用圭. 象曰益用凶事, 固有之也."

한 일에 益을 써도 허물이 없는 것은 中道를 실천하는 군은 신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주역』에서 믿음은 信과 孚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논의된 孚는 中孚卦의 괘 이름이자, 爫(爪)와 子(알)로, 알을 품고 있는 새의 믿음이다. 즉, 어미 새는 21일이 지나면 알이 부화된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고 있는 것이다. 有孚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또 公은 공변된 사람으로 『주역』에서는 四德을 실천하는 君子를 의미한다. 특히 三·四爻는 人道의 자리로 군자를 상징한다. '홀 圭'는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나 신표로 사용한 것으로, 하늘(성인)이 군자에게 주는 신표인 것이다. 군자는 하늘이 준 신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흉한 일에 더함을 사용해도 허물이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六四爻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 "六四는 中道를 행하면 공에게 고하여 쫓을 것이니 의지함을 이롭게 쓰며 나라를 옮기는 것이다. 상에서 말하기를 공에게 고하여 쫓는 것은 뜻을 더하기 때문이다."[56]

六三爻와 같이 中行이 근본 문제임을 논하고 있다. 중도를 행하는 것은 선진유학의 핵심적 실천론인 時中之道와 만나게 된다. 『주역』에서는 "장자가 무리를 거느리면 중도를 행하는 것이고, 제자가 수레를 주관하면 부당한 것이다."[57], "중도를 행함에 숭상함을 얻는 것이다."[58], "중도를 행하여 홀로 돌아오는 것이다. 中行獨復은 도를 따르는 것이다."[59]라고 하여, 중도

56) 『주역』, 「風雷益」, 六四, "六四, 中行, 告公從, 利用爲依, 遷國. 象曰告公從, 以益志也."
57) 『주역』, 「地水師」, 六五, "長子帥師, 以中行也. 弟子輿尸, 使不當也."
58) 『주역』, 「地天泰」, 九二, "得尙于中行."
59) 『주역』, 「地雷復」, 六四, "六四 中行 獨復. 象曰 中行獨復 以從道也.

를 행하면 허물이 없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 하였다.

『書經』에서는 "인심은 오직 위태롭고, 도심은 오직 은미하니 오직 精一하여 진실로 그 中을 잡아야 한다."[60]고 하고, "왕이 큰 덕을 힘써 밝혀 백성들에게 중도를 세워서 정의로써 일을 제정하고 예의로서 마음을 정정하니"[61]라고 하여, 中道는 사람의 마음을 올바로 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의 良心을 잡아서 정의와 예의에 맞게 쓰는 것이 중도를 행하는 것이다. 『중용』에서도 군자의 중용은 時中이고, 어렵게 여겨서 꺼리는 마음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62]

『맹자』에서는 "양자는 나를 위함을 취하니 한 터럭을 뽑아서 천하가 이롭더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묵자는 겸애하니 이마를 갈아서 발 뒷꿈치에 이르더라고 천하가 이로우면 하는 것이다. 자막은 중을 잡으니 중을 잡은 것은 가까운 것이나 중을 잡고 권도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를 잡고 있는 것이다."[63]라고 하여, 양주의 爲我(利己主義), 묵적의 兼愛(全體主義), 자막의 執中은 모두 中道를 잃어버린 것이라 하였다. 하나를 잡고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만 들고 백가지를 廢하는 잘못을 하기 때문이다.[64]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극단적 개인주의(이기주의)나, 사랑을 겸하는 전체주의(공산주의)나, 가운데를 잡고 權道를 쓰지 못하는 執中은 모두 中道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中道를 실천하기 때문에 나라를 옮기는 大事도 가능한 것이다. 遷國은 나라를 옮기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실제로 도읍을 옮기는 '遷都'를 사용하고 있다. 遷國의 遷은 大象辭의 遷善과 만나기 때문에 遷國의 철학(인

60) 『서경』, 「皐陶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61) 『서경』, 「仲虺之誥」, "王懋昭大德 建中于民 以義制事 以禮制心."
62) 『중용』, 제2장,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63) 『맹자』, 「盡心章句上」, "孟子曰 楊子, 取爲我, 拔一毛而利天下, 不爲也. 墨子, 兼愛, 摩頂放踵, 利天下, 爲之. 子莫, 執中, 執中, 爲近之, 執中無權, 猶執一也."
64) 『맹자』, 「盡心章句上」, "所惡執一者, 爲其賊道也, 擧一而廢百也."

문학)적 의미는 내 마음을 욕심의 나라에서 至善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이상에서 三爻와 四爻의 함의된 교육의 의미는 中道를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正道를 통해 邪道를 바로 잡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는 正道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 楊朱와 같이 爲我하여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주의를 바로 잡는 교육, 墨翟과 같이 兼愛하여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것을 잡아주고, 子莫과 같이 하나에 고착되지 않고 방편으로 쓸 수 있는 權道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중도를 행함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스승은 학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中道를 가르쳐 행하게 하는 것이다.

3. 九五·上九 : 은혜로운 마음을 세우다.

본 절에서는 天에 해당되는 九五와 上九의 爻辭와 小象辭를 해석하고, 그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九五爻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九五는 은혜로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이라 묻지 않아도 근원적으로 길하니 믿음이 있으면 나의 덕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다. 상에서 말하기를 은혜로운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은 묻지 않는 것이며, 나의 덕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 크게 뜻을 얻었기 때문이다."[65]

九五爻의 핵심적 내용은 믿음과 惠心으로, 믿음은 六三爻에서 고찰하였

65) 『주역』, 「風雷益」, 九五, "九五, 有孚惠心, 勿問, 元吉, 有孚, 惠我德. 象曰有孚惠心, 勿問之矣, 惠我德, 大得志也."

고, 혜심을 논하면, 혜심(惠心)은 마음을 은혜롭게 하는 것이니, 사람의 근원적인 덕이 마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주역』을 비롯하여 선진유학에서 하늘의 본성은 天性이라 하고, 인간의 본성은 人性(仁性)이라 하는데, 하늘과 인간의 본성을 포괄하는 개념이 德이다. 이 혜심은 바로 본성의 마음작용으로 仁性과 짝하는 것이다.

『書經』에서는 '사람을 아는 것이 밝음이니 능히 사람을 관리할 수 있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은혜이니 백성들이 마음에 품는 것이다.'[66]·'오직 하늘이 백성을 은혜롭게 한다'[67]·'넓고 큰 하늘은 친함이 없고 오직 덕을 보호하고, 백성의 마음은 항상 함이 없고 오직 은혜를 품는 것이다.'[68] 라고 하여, 은혜는 하늘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은택임을 밝히고 있다. 彖辭에서 밝힌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해주는(損上益下)' 것을 사람의 마음에 비추면 은혜가 되는 것이다.

『논어』에서도 '군자의 도에는 공손·공경·은혜·정의가 있는데, 백성을 기르는 것이 은혜이다'[69]라 하고, 惠心은 은혜롭지만 낭비하지 않고, 백성들의 이로움으로 인하여 이롭게 하는 것이라[70] 하였다.

다음으로 마지막 爻인 上九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상구는 더함이 없는 것이라 혹이 치는 것이니, 마음을 세워서 항상하지 않으니 흉한 것이다. 상에서 말하기를 더함이 없는 것은 치우친 말씀 때문이고, 혹이 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71]

---

66) 『서경』, 「皐陶謨」, "知人則哲, 能官人, 安民則惠 ,黎民懷之"
67) 『서경』, 「泰誓中」, "惟天惠民."
68) 『서경』, 「蔡仲之命」, "皇天無親, 惟德是輔, 民心無常, 惟惠之懷."
69) 『논어』, 「公冶長」, "有君子之道, 四焉, 其行己也, 恭, 其事上也, 敬, 其養民也, 惠, 其使民也, 義."
70) 『논어』, 「堯曰」, "子 曰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71) 『주역』, 「風雷益」, 上九, "上九, 莫益之, 或擊之, 立心勿恒 凶. 象曰莫益之, 偏辭也. 或擊之, 自外來也."

上九爻는 하늘의 은택이 더해지지 않고 오히려 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은 마음을 세워서 항상 하지 않고 치우친 말씀을 하기 때문이다. 立心勿恒의 '항상 恒'은 32번째 괘인 「뇌풍항」의 괘 이름으로, 항구하고 그치지 않는 天地之道이자, 그 진리에 항구하여 세상을 감화하는 성인지도를 의미한다.[72] 恒卦 大象辭에서는 "우뢰와 바람이 항이니 군자가 이로써 뜻을 세워서 방소를 바꾸지 않는다"[73]라고 하여, 聖人之道에 마음을 세웠거든 바꾸지 않는 것이 恒임을 논하고 있다. 恒卦와 益卦는 震卦와 巽卦가 上下로 교역된 괘로, 괘상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마음을 세우는 立志와 聖人之道를 의미하는 恒으로 논하고 있다.

偏辭에 대해 『맹자』에서는 "치우친 말에 그 가려진 바를 알고, 음란한 말에 그 빠져 있는 바를 알고, 간사한 말에 그 벗어난 것을 알며 회피하는 말에 그 궁한 것을 알 수 있으니."[74]라고 하여, 詖·淫·邪·遁의 네 가지 왜곡된 말 속에 숨겨진 왜곡된 마음을 논하고 있다. 치우친 말을 하는 것은 말 속에 은폐된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더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칠 擊'은 蒙卦 상구효인 "몽을 치는 것이니 도적이 되는 것은 이롭지 못하고 도적을 막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75]라고 하여, 어리석고 蒙昧한 사람을 치는 것은 도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蒙은 사리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이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益卦 상구효사를 「계사하」 제5장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

72) 『주역』, 「雷風恒」, 彖辭, "天地之道, 恒久而不已也, 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
73) 『주역』, 「雷風恒」, 大象辭, "象曰雷風, 恒, 君子, 以, 立不易方."
74) 『맹자』, 「公孫丑章句上」, "何謂知言, 曰詖辭, 知其所蔽, 淫辭, 知其所陷, 邪辭, 知其所離, 遁辭, 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其事, 聖人復起, 必從吾言矣."
75) 『주역』, 「山水蒙」, 上九, "上九, 擊蒙, 不利爲寇, 利禦寇."

가 그 몸을 편안하게 한 이후에 움직이며, 그 마음을 바꾼 이후에 말하며, 그 사귐을 정한 이후에야 구하니, 군자가 이 세 가지를 닦는 까닭으로 온전한 것이니, 위태로움으로 움직이면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말하면 백성들이 감응하지 않고, 사귐이 없이 구하면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으니, 함께함이 없으면 상하는 것이 이르게 되니, 『주역』에서 말하기를 더함이 없는 것이라 혹이 치는 것이니 마음을 세워서 항상 하지 않으니 흉한 것이라 하였다."[76]라고 하여, 철학적 의미를 밝히고 있다.

우리가 위태롭게 행동하고, 두려움으로 말하고, 사귐이 없이 구하려고 하면 얻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세워서 聖人之道에 恒常하는 군자는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한 이후에 행동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킨 이후에 말하고, 다른 사람과 사귐을 안정시킨 이후에 구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말하고, 움직이고, 구함에 모두 그 도를 쓰면 이에 선이 온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함을 취하여 흉한 것이다.[77]

九五와 上九爻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는 은혜의 마음인 惠心과 마음을 세워서 항상 하지 않는 立心勿恒의 주제를 통해 논할 수 있다. 스승은 은혜의 마음을 세워야 한다. 스승은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세워서는 항상 해야 한다. 上九爻의 立心勿恒은 마음을 세워서 항상 함이 있는 '立心有恒'이 되어야한다.

또 교육은 치우친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스승은 학생들의 말 속에 담겨진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맹자가 말했듯이 치우친 말에는 숨은 다른 의도가 있고, 음란한 말에는 빠져서 탐닉하는 것이고 있고, 간사한 말에는 도덕적 삶과 떨어진 것이

76) 『주역』, 「繫辭下」, 제5장, "子曰君子, 安其身而後, 動, 易其心而後, 語, 定其交而後, 求. 君子, 脩此三者故, 全也. 危以動, 則民不與也, 懼以語, 則民不應也, 无交而求, 則民不與也, 莫之與, 則傷之者, 至矣. 易曰莫益之, 或擊之, 立心勿恒, 凶."

77) 程頤, 『易傳』, 「風雷益」, 上九, "君子, 言動與求, 皆以其道, 乃完善也, 不然則取傷而凶矣."

있고, 달아나는 말에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고 궁한 것이 있는 것이다.

Ⅳ. 결론

본 논문은『주역』42번째 괘인 益卦의 인문적 해석과 그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괘사, 단사, 대상사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논하였다. 익괘 괘사에서 교육은 지식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더해주는 것으로, 하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에 더해주는 교육으로 논할 수 있다.

또 彖辭의 하늘이 베풀고 땅이 생하는 天施地生의 이치는 교육론에 그대로 적용된다. 스승은 사랑을 베풀고 학생은 자라게 되는 이치이다.

大象辭를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은 각자가 善(良心)을 가지고 있지만, 발현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개인이 善性을 발견하여 실천하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제3장에서는 六爻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初九爻에 함의된 교육의 의미는 乾坤之道에 바탕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乾坤之道는 바로 하늘의 뜻, 즉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益卦에서 밝히는 교육의 특징이라 하겠다. 乾坤의 진리를 근거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創意的 인재 양성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創意性은 하늘의 뜻을 깨우치는 것과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인『주역』의 말씀을 통해 교육철학이 정립되어야 한다.

六二爻에서는 상제에게 향례를 올려 하늘의 뜻에 감응하는 것과 하늘의 뜻을 펼치는 것이 교육임을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스승이 학생을 대할 때의 태도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주역』에서 사

람은 그 근거가 되는 하늘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교육하는 것도 하늘을 벗어나서 논의될 수는 없는 것이다.

三爻와 四爻에서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正道를 통해 邪道를 바로 잡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좌와 우에 치우치지 않는 正道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교육의 문제인 일부 교사들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九五와 上九爻에서는 은혜의 마음인 惠心과 마음을 세워서 항상 하는 立心有恒을 논할 수 있다. 스승은 학생들을 대함에 있어서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세움에 있어서는 恒常性이 있어야 한다.

특히 益卦의 교육의 의미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78] 밝힌 '弘益人間'의 교육이념과 만나게 된다. 널리 이롭게 한다는 '弘益'에 益은 '위를 덜어서 아래에 더하니, 백성의 기쁨이 한계가 없고,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니 그 도가 크게 빛난다'는 益卦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益卦의 교육론을 근거로 한국의 교육을 새롭게 조명한다면, 한국의 정서와 역사에 맞는 교육철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역』의 64괘에 대한 직접적인 인문적 해석을 시도한 본 논문은 익괘의 교육론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이후의 64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목해 나가고자 한다.

78)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周易』.

『書經』.

『禮記』.

『論語』.

『中庸』.

『孟子』.

孔穎達, 『周易正義』.

程頤, 『易傳』.

朱熹, 『易學啓蒙』.

김충렬, 「損, 益卦의 논리와 교훈」, 『周易硏究』 제2집, 한국주역학회, 1997.

류남상 외, 『一夫傳記와 正易哲學』, 도서출판 연경원, 2013.

박균섭, 「조선시대 『주역』의 이해와 교육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교육사학』 제30권 제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8.

송재국, 『송재국 교수의 역학담론 - 하늘의 빛 正易, 땅의 소리 周易』, 예문서원, 2010.

_____, 「『주역』 풍뢰익괘 '天施地生'의 順逆的 이해」, 『동서철학연구』 제60집, 동서철학회. 2011.

유병헌 외, 「「계사상」 제8장과 言·行의 易哲學的 의미」, 『인문학연구』 제128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22.

이영옥, 「『주역』 몽괘의 교학론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정래, 「「서괘전」에 함의된 공부의 관점 - 태괘에서 이괘까지를 중심으로」, 『한국철학논집』 제59집, 한국철학논집, 2018.

임병학, 「『周易』의 河圖洛書論에 근거한 『正易』의 팔괘도에 대한 고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0집,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_____, 「『周易』의 河圖·洛書와 「繫辭上」 제9장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83호, 한국동서철학회, 2017.
_____, 『중용, 주역으로 풀다』, 동남풍, 2018.
_____,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8.
_____, 『周易』의 河圖洛書論에 근거한 卜筮와 往來·順逆의 의미 고찰」, 『인문학연구』 제116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9.
임병학·유병헌, 「『繫辭上」 제4장과 주역의 학문체계 고찰」, 『동서철학연구』 제99호, 한국동서철학회, 2021.
장재천, 「몽괘의 해석과 교육적 의미」, 『주역철학과 문화』 제3집, 한국역경문화학회, 2005.

<Abstracts>

A Study on the Meaning of Education and Humanistic interpretation in the Yi Hexagram of *I-Ching*

Lim, Byeong-hak

This paper considers the education theory and Humanistic interpretation involved in the 42nd Yi Hexagram of *I-Ching*. the second volume of Xici chapter Ⅱ discovered the meaning of educational theory which the Shénnóng(神農) taught the world from Yi Hexagram.

First of all, Yi Hexagram Guàcí(卦辭) has the meaning of education that should be practiced according to the work of heaven. Education does not add knowledge, it adds wisdom. It can be argued that the love of heaven is an education that adds to people's minds.

Also, Tuànzhuàn(彖辭) is removed and added to the bottom. It can be thought of as a teacher taking away his wisdom and love and adding it to the students below. Heaven's Will Land's Creation(天施地生) applies directly to the theory of education theory. Teachers give love and students grow up.

According to the education theory of Dàxiàngcí(大象辭), each student has a good heart, but it is not expressed, so each student needs an

education that finds and practices good.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correct the mistakes, but it is only after practicing one's conscience.

Next, In the first(or lowest) line education based on the Qián-Kūn (乾坤) should be conducted. The Qián-Kūn refers to the will of heaven, the truth,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educational theory revealed in the *I-Ching*. In the second line, human beings are heaven, so they can be understood as teachers' attitude toward students. In *I-Ching*, human beings do not deviate from the heaven on which they are based, so educating humans cannot be discussed beyond the heaven.

According to the education theory of In the third line and In the fourth line, We can see that the key is to practice the middle way. To practice the middle way is to correct the way through the right way. In education, we have to teach the right and left directions.

In the fifth line and In the sixth(or topmost) line, It's always done with a heart and a heart of grace(惠心). Teachers should have a heart of grace in dealing with students, and they should always do it when they set it up.

Key words : *I-Ching*, Yi Hexagram, Education, Heaven's Will Land's Creation, Qián-Kūn, middle way, heart of grace.

임병학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54538)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460 동양학대학원
전자우편: limph5159@naver.com

이 논문은 2022년 9월 16일 투고되어 2022년 10월 19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2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